



루이스 초이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무대 오르는 루이스 초이

소프라노 음역 구사 남성 성악가

25일 '루이스 초이 더 스토리' 공연

오페라·재즈·샹송·가요 등

장르 넘나들며 색다른 무대 선사

"카운터테너라는 생소한 영역을 알리기 위해 제인의 열정을 펼쳐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뮤지컬 '파리넬리'의 주역으로 활동할 때 느꼈던 감동도 풀어내고 싶어요."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018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그 두 번째 무대에 카운터 테너 루이스 초이가 오른다.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루이스 초이는 남성적인 다이내믹과 여성적인 섬세함이 공존하는 신비의 목소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카운터테너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 가수, 팝페라 가수,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루이스 초이의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다.

카스트라토(Castrator)는 남성이면서 여성의 음역을 노래하는 성악 파트로 중세 이후 여성을 억압했던 역사가 빛어낸 '비극'의 산물로 알려져 있다.



재즈피아니스트 권용은



피아니스트 김진겸

국내에서는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 그 스토리가 알려졌다. 비발디, 헨델 등의 바로크 오페라 붐에 힘입어 17, 18세기 오페라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카스트라토가 19세기 초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들을 대신한 카운터테너(Countertenor)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카운터테너는 가성(假聲)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를 말한다. 6~8세의 남자 아이를 거세해 변성기를 거치지 않게 하는 카스트라토와는 달리, 카운터테너는 정상적으로 변성을 거친 남성이 가성만을 이용해 노래하는 것이다.

루이스 초이는 '여성의 소리를 내는' 카운터 테너를 대중에게 알린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루이스 초이 THE STORY'라는 제

목에 걸맞게 독일로 유학을 떠나 혼자 꿈을 키웠던 시절의 외로움, 뒤셀도르프 국립극장에서 주역으로 데뷔하며 얻은 자신감, 한국에 귀국해 카운터테너라는 생소한 영역을 알려나가는 열정 그리고 뮤지컬 '파리넬리'의 주역으로 활동할 때의 감동 등을 스토리로 풀어낸다.

그가 들려줄 노래는 뮤지컬 '파리넬리'에서 들려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날 울게 하소서', 헨델의 오페라 '알치나' 중 '내게 돌아와 주오'를 비롯해 재즈 '스페인', 샹송 '고엽', 가요 '꽃밭에서' 등이다. 또 그의 정규 앨범 수록곡인 '추억'도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루이스 초이는 독일 뒤셀도르프슈만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오페라 석사과정을 밟았으며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카운터테너로 활동했으며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아랑', 창작뮤지컬 '파리넬리'의 주역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음악학부 성악과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이날 공연에는 재즈피아니스트 권용은 씨와 피아니스트 김진겸 씨도 출연한다.

루이스 초이는 공연에 앞서 "광주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 가슴 벅차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제 음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 꿈이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곳을 다니며 두루두루 경험을 쌓아 그것을 다시 대중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프랑스 음악, 인상주의를 만나다' 내일 호남신학대 공연

유럽을 무대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과 인상주의 그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호남신학대학교는 '음악, 그림을 만나다 프랑스 파리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연다. 19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

10년 이상 유럽에 거주하며 문화예술을 연구한 문화해설가 김성민의 그림 해설과 함께 프랑스 및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다미앙 필립과 피아니스트 송이른, 그리고 2010년 스

페인 빌바오 국제콩쿠르 우승자이자 세계 명문 플라시도 도밍고 센터에서 활약한 바리톤 허준훈이 함께한다.

공연은 현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포렌즈' 곡 등 귀에 익숙한 영화 OST에서부터 오페라 및 피아노 연주까지 다양한 음악과 그림 해설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에릭 사티의 '난 널 원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 '불가능한 꿈', 영화 '제8요일' OST



다미앙 필립



송이른

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파울로 토스티의 '사랑스런 입술', 김다미의 '달을 듣다', 이효근의 '눈' 등이다. 문의 010-9442-788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금호중앙여고 동문들 아름다운 하모니

24일 광주문예회관서 연주회

같은 학교로 인연을 맺은 동문들이 봄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금호중앙여고 동문들로 이뤄진 중앙레이디스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항해'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 연주회를 여는 중앙레이디스 앙상블은 2010년 금호중앙여고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창단됐다.

1회 졸업생으로부터 51회 졸업생까지 30여 명의 단원들이 고교 재학시절의 음악활동 추억을 공유하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합창 음악회를 통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항해'라는 부제를 붙였다. 같은 꿈을 하고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여정을 노래한다는 뜻이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아지랑이', '고향의 봄', '모래성', '은행잎', '겨울나무', '나비에게',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15곡이다.

중앙레이디스앙상블 단원들은 최희진(9회) 동문을 단장으로 지휘에 송미나(20회), 반주에 김은아(20회)동문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모교 음악실에서 연주회를 준비해왔다.

최희진 단장은 "중앙레이디스앙상블은 금호중앙여고 동문들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재능기부와 숨겨진 재능을 토대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합창음악을 즐기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에는 독일 '로만틱(Romantik)' 음악캠프 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10-9947-808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최근 열린 중앙레이디스앙상블 연주회.

하정웅미술관 '인문학 강좌' 내일 시작

4~9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2018 인문학 강좌가 4~9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오후 3시) 열린다.

올해 강좌의 주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이 우리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현실을 사는 시민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회이다.

첫 강의를 오는 19일 최진석 건명원장(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 진행하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다. 최원장은 강의에서 탁월하고 구체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야기한다.

이어 5월 18일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루덴스로-게이



최진석 교수 진중권 교수 고미숙 평론가

미피케이션'을 주제로 강의하며 6월 14일에는 이항준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어떤 인문학적 동상'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그밖에 '이도화(한국전통문화대 융합고교학과 교수·7월19일), 고미숙(고전평론가·8월16일), 조종식(조선대 미술학과 교수·9월13일)의 강의가 이어진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5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보문고 6월7일까지 스토리공모

교보문고는 '작가에게는 꿈, 스토리에는 날개'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제6회 스토리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부문은 소설(단편, 중장편)과 동화로, 기성작가를 포함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동

창작도 가능하며 장르와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6월 7일까지이며 교보문고 스토리(story.kyobobook.co.kr)에서 신청서와 원고를 다운받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소설 단편 12~40매, 중장편 50매 이상이며 동화는 30~50매이다. 문의 02-2076-0540. /박성천기자 skypark@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소확행
프렌드
확신

북간 5주년 - 발행인의 본지 다섯 번째 봄 세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 소확행 라이프 꿈꾸는 이들
- 출판가 소확행 신드롬
- 대중문화 사로잡은 소확행

스포츠이야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시상 출발

해양수산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험,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⑤
남만,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예능 초대석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올리 다시보기④-소통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폴리

문장이 승위는 문학관을 찾아서⑥
지리산처럼 유장한 소설가의 공간
이병주 문학관

문화연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티븐 vs. 멜릭

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⑥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대나무 사이로
분화꽃 핀 생태도시
다양한
-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품으로
- 담양식 데자갈비, 떡갈비